



막걸리 포장변천사

Rice Wine Packaging

김 어 진 / 국순당 디자인팀 팀장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발행하는 주간지 '닛케이트렌디' 12월호는 '2011년 히트 상품 베스트 30' 에서 막걸리를 7위로 뽑았다.

연평균 50~60%를 기록했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한국에서의 매출도 꾸준하다. 지난해에는 막걸리에 항암물질인 파네올 성분이 맥주나 와인보다 최대 25배 이상 들어있다는 조사결과 발표로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주 막걸리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한류열풍과 함께 한국을

찾게 된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그 관심은 자연스레 한국전통주인 막걸리로 이어졌고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막걸리는 국내에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또한 불경기와 건강지향 트렌드로 소비자들이 비교적 저렴하고 도수가 낮은 주류를 찾는 구매패턴이 형성되는 등의 환경이 조성되었다.

막걸리의 가격은 싸지만 제조원가는 상당히 높아서 그동안 포장에 투자를 하기힘든 상황이

[사진 1] 캔막걸리 변천사





[사진 2] 병막걸리 변천사



었다. 업체 입장에서는 최대한 제조원가를 낮추어 이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막걸리에는 패트재질의 저가주류라는 소비자 인식의 형성되어 있었다. 그 중 주목할만한 것은 1993년 출시된 국순당 캔막걸리이다. 포장에 있어서 색다른 시도였지만 당시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현재에도 캔막걸리는 다른 모습으로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사진 1). 캔구조는 3피스에서 2피스로, 컬러는 시원함을 강조한 블루컬러에서 소프트한 톤으로 변화되었다.

어떤 카테고리가 주목을 받게되면 소비자층이 넓어지게 되기 마련이다. 막걸리 붐과 함께 젊은 층이나 여성들이 막걸리를 찾게 되면서 막걸리에 대해 접근하는 제조사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막걸리 종류(맛)나 디자인(용기, 그래픽)이 다양해진 것도 이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현재 마트에는 막걸리 매대가 확대되어 전용 냉장매대까지 등장했고 타겟을 고려한 다양한 막걸리들

이 진열되어 있다.

자사에는 현재 10종류가 넘는 막걸리가 라인업 되어 있는데 그 중 가장 대중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제품이 ‘국순당 생막걸리’이다. 이는 당시 생막걸리로는 파격적인 유통기한 30일의 전국구 막걸리로 제품품질개선(발효제어기술)과 포장재(밀폐캡), 유통(전국냉장유통)이 만들어 낸 성과이다.

이후 ‘우국생’은 우리쌀로 빚은 제품의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전용페트디자인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이는 투명페트를 대중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또한 용기디자인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직선이 되어야 하는 라벨구간을 최소화하였다. 프리미엄 라인으로는 일본수출용으로 제작되었다가 내수판매도 함께 하고 있는 ‘미몽’과 막걸리의 걸쭉함을 거부해하는 젊은 여성층을 겨냥한 ‘맑은백세막걸리’ 등이 있으며, 유리용기로 제작되어 고급감을 주고있다.

또한 ‘오름’과 같이 삼페인 용기에 담겨 축하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파클링 막걸리의 등장과

[사진 3] 국순당의 현재 병막걸리병



고려시대 귀족들이 먹던 고급막걸리를 복원한 '이화주'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오름'은 샴페인 용기에 스티커라벨, 넥라벨, 루땡까지 막걸리로서는 파격적인 스펙을 적용하여 샴페인의 대체 제품으로 활용가능하도록 고

급감을 주었고, 이화주는 국순당의 숙원사업이 기도 한 우리술 복원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되어 대중화된 케이스로, 기존 화장품 등의 고가 제품에 사용되던 방식인 액상코팅을 적용한 용기와 원형지관 형태의 외부패키지에 무광라미네이팅을 적용하여 고급감을 높였다.

그동안 막걸리는 짧은 유통기한과 획일화된 포장, 제품의 다양성 부족, 품질 관리 체계의 미흡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막걸리가 주목받으면서 제품의 품질개선과 패키지형태의 다양화, 기술개발로 유통기한을 확대하는 등 업계의 노력이 계속 되고 있다.

일본은 사케, 프랑스는 와인, 독일은 맥주, 중국은 고량주가 있듯이 막걸리가 '세계적 문화 콘텐츠'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패키지의 역할 또한 간과할 수 없다. kol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